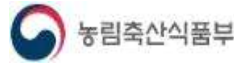
	보도자료	
2019년 7월 1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유통정책과 과 장 이정삼(044-201-2211), 사무관 김남주(2285) / 제공일: 7월 11일(총 4매)		
적정없이 증가했고 안정하고 소비하는 나라		
직거래사업자, 밀착지원으로 경영에 안정을! - 지역 현장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상담지원단 연중 운영 -		
— < 주 요 내 용 > — ◆ 농식품부, 7월부터 “현장전문가와 함께하는 직거래사업자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” 추진 ○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매장을 대상으로 상담실시 후 필요시 교육·홍보·특판까지 이어서 지원 ○ 로컬푸드직매장, 직거래장터, 꾸러미 등 직거래사업자는 바로 정보(www.baroinfo.com)를 통해 상시 신청가능 • 2018년도는 로컬푸드직매장에 한하여 연초에 공모를 통해 상담지원을 실시하였음		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, 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7월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이하 aT) 주관으로 “현장전문가와 함께하는 직거래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”을 추진한다.
-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,
- 매장의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, 일회성으로 끝나는 기존의 단순 상담지원의 개념을 벗어난 밀착지원 방식의 사업이다.

	해명자료	
2019년 7월 1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식량산업과 과 장 김정주(044-201-1831), 서기관 송재원(1832) / 제공일: 7월 12일(총 3매)		
적정없이 증가했고 안정하고 소비하는 나라		
생산조정제(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) 마늘, 양파 공급 과잉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[경향신문·헤럴드경제(7.11.) 보도 내용 해명]		

- 올해, 양파 공급과잉은 전년보다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, 기상호조로 인한 생산량 증가 때문임
- 생산조정제(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)는 벼 재배기간(하계) 동안 벼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, 마늘, 양파는 주로 벼 수확을 마치고 재배(동계 이모작)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 생산조정제가 직접적으로 양파 공급 과잉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
- 7월 11일 「경향신문, 쌀 줄이려다 마늘, 양파 파동 불렀나?」, 「헤럴드경제, ‘文’ 공약이 부른 양파 파동, 정부의 무능 농정은 계속」 보도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달라 해명합니다.

언론 보도내용

- (경향신문) 쌀 공급과잉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조정제(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)가 양파와 마늘의 과잉생산을 이끌었고 결국 가격폭락 및 산지폐기 등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.
- (헤럴드경제) 쌀 재배량을 줄이고자 논에 마늘과 양파를 기르도록 유도한 결과가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임

- 올해 생산조정제에 따라 논에 마늘을 심은 면적(신청 기준)은 총 655.1ha에 달했다.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해당 면적에서 마늘 8647톤이 생산돼 전체 과잉생산량 6만톤의 14.4%를 차지했다.
- 양파 역시 올해 생산조정제를 통해 248.1ha의 논에서 재배됐다. 그 결과 논에서만 1만7143톤이 생산돼 전체 초과 물량 15만톤의 11.4%를 차지했다. 마늘 및 양파의 공급과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다.
- 지난해는 661.3ha의 논에서 마늘을 재배했으며, 양파는 301.6ha에 심어졌다. 지난해 과잉생산량 중 마늘은 18.4%, 양파는 9.8%가 생산조정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.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'19년 통계청 「농업면적조사」 결과, 생산조정제(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) 첫해(출하기준)인 금년은,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전년에 비해 **논 마늘 재배 면적은 134ha, 논 양파는 1,469ha** 각각 감소하였음
- 금년도 마늘, 양파 생산과잉의 주요 원인은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**기상호조 등에 의한 생산량 증가**에 의한 것임

<연도별 마늘, 양파 재배면적>

(단위 : ha)

연도별	합계		논		밭		비 고 (논타작물사업 출하기준)
	마늘	양파	마늘	양파	마늘	양파	
'19	27,689	21,785	9,547	8,144	18,142	13,640	(사업첫해) '18년 기출파종 분 마늘 661ha, 양파 302ha
'18	28,351	26,425	9,681	9,613	18,671	16,812	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미 실시
* '19년 '논타작물 사업'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마늘, 양파 재배 면적 감소							
** (헤럴드경제) 마늘·양파는 동계작물로서 당년 생산량은 전년도 파종에 의한 것 이나, 당년 신청 면적을 당해 연도에 생산된 것으로 보도['18년 사업 참여 면적만 '19년에 1회 생산되었으나, '19년 신청 면적('20년 출하 예정)까지 생산된 것으로 보도]							

- **생산조정제**(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)는 **하계에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**하는 사업이며,
 - 벼는 마늘, 양파와 재배 시기가 달라 동 사업으로 인해 **직접적인 마늘, 양파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**
 - * '18년 「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」 이전의 대부분 논 마늘·양파 재배 농가들은 하계에 벼를 재배한 후 이모작(동계)으로 마늘, 양파를 재배하는 작부체계였음
- 다만, 현장에서 **생산조정제**(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)로 인한 **벼 이외 품목의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** 지자체 등과 함께 **면밀히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** 해나갈 계획임